

◇99 서울연극제 출품작인 '철안뵈다'가 물질 문명의 극치 가 가져온 결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8일부터 24일까지 봉곡의 아픔이 있는 성수대교 확장공사 현장 특설무대에 공연된다.

깊어가는 가을밤 성수대교에 가면 부 처님의 공생적 연기관을 연극을 통해 체 험할 수 있다. 인간 복제가 가능한 미래 사회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와 생명의 영속성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편 의 연극이 성수대교 공사 현장 야외 특 설 무대에서 마련된다.

연극 '철안뵈다' 야외서 본다

8~24일 성수대교 확장공사현장 특설무대 인간존재 가치-불교의 연기관 등 표현

8일부터 24일까지 공연되는 극단 유 씨어터(대표 유인촌)의 불교 창작 연극 '철안 뵈다'(작·연출 조광화), '99서울 연극제의 출품작인 작품은 특히 급속도로 발전된 물질 문명과 산업화의 극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봉곡의 아픔이 있는 성수대교 확장 공사현장을 무 대로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처음에는 삼중백화점 참사 현장을 꿈 았으나 관계기관과 유족들의 거부로 무 산됐다는 후문. 유씨어터측은 또 공사 현장에 가득 널려 있는 철재와 고철 등 도 무대 배경과 소품으로 여과없이 사

용해 극적인 전달 효과를 높여줄것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연극 '철안뵈다'의 무대는 석존 열반 3000년 후인 25세기 중반의 먼미래. 석 가모니의 출가 항마성도와 석가족 멸망 의 신화를 SF(공상과학)적인 요소를 가 미해 미래 세계로 옮겨 재구성했다. 개 체의 수명 연장을 위해 인간이 만든 복 제 인간이 오히려 인간 종말을 불러 일 으키므로 부처님의 윤회와 공생적 연기 관만이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준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복제 인간 철안족과 순수 인간과의 며칠간 일어난 대립을 이야기로 꾸몄다. 또 철

안족들이 무대위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무시하며 인정 사정 없이 파괴해 가는 섬뜩한 장면도 이 연극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특히 순수인간인 닥터의 유인촌씨를 비롯해 붓다역의 권성덕, 철안족 안희영의 이남희, 닥터 아들인 사원역의 홍경인 등 출연진들도 국내 정상급이다. 연출가 조광화씨는 "야외무대에서 야 기되는 분주함과 산만한 등의 단점은 인도 전통무예인 '칼라리파야트'를 익 히는 등 혹독한 연기 훈련을 통해 극복 하려고 노력했다"며 "인간 사회의 갈등 요인인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공생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 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털 어놓았다. (02)3444-0651

김주익 기자 (jikim@buddhania.com)



◇17세기 제작된 목조아미타여좌상.

조선중기 목조불상 '공개'

영남대 박물관 조선조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제작된 목조아미타 여좌상이 최근 공개됐다. 특히 불상의 복장물품 조 성 발원문과 불경, 부처, 역을 뜻하는 베(布)와 종이 가 함께 나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불상은 영남대 박물관 유홍준관장이 국립중앙박 물관 발간한 <미술자료> 제62호를 통해 관련 사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불상은 33.1cm 크 기로 소나무를 깎아 옷칠과 금을 차례로 입힌 것. 보관상 태는 가슴부분의 금가루가 약간 벗겨진 상처를 제외하 곤 거의 온전하다.

불상의 발원문에 따르면 1637년 경북 성주 비슬산 명적암에서 조성됐다. 부처는 고운 한지에 결명주사로 찍어낸 목관본 불경이다. 김리나교수(홍익대 불교미술사)는 "조선시대 불상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조성연대와 내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륵사 복원추진

익산시, 올내 계획안 마련

전북 익산시는 9월18일 우리나라 미륵산양의 본산이자 백제시대 최대의 사찰이었던 미륵사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2005년까지 추진할 '백제 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미륵 사 복원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7천 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찰 복원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기본계획안에는 국내·외의 문헌과 발굴 자료, 고분화와 고건축자료를 토대로 미륵사 복원을 위한 방향, 복원 위치 및 규모, 토지이 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익산 미륵사지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익산 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이래 1년만에 구체화 됐다. <본지 193호 10면 참조> 익산시는 이 안이 마련되면 1천억원을 웃돌 복원사업비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문화관 광부 국비지원비 외에도 불교계민자유치도 모 색하기로 했다.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는 부여문화재연구 소가 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발굴조사를 실 시, 가람의 규모와 형태를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륵사가 복원되면 국내 최 대 불교문화 재현단지로서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자원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묵스님 '비구노사나 유화전'

북 어린이들기 서울·부산·마산 13일부터 순회전



◇상묵스님작 '비구노사나'

경기도 무형문화재 8명 새로 지정

경기도는 10월 2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단청, 화각공 예등 5개 분야 8명의 기능보유자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 정했다. 분야별 무형문화재 지정자는 ▲단청 김중욱(62) ▲화각공에 한춘섭(50) ▲악기 임성빈(49), 최태순(57) ▲경기소리 이상희(30·휘몰이잡가), 임정자(56·긴잡가) ▲상여·화다지소리 박조원(74), 최원산(8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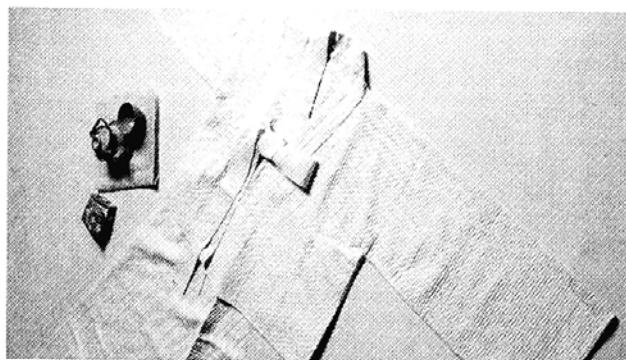
◇김중욱씨



◇자은스님의 불교 창작 무용극 '재생(再生)' 중 한 장면.

한국불자무용인회 창립공연 '재생' 日서 성황

30여년 동안 무용 포교에 앞장 서 온 자은스님(하와이 불교사 주지)이 2일 불교 창작 무용극 '재생(再生)' 을 일본 오사카 시민회관에서 공연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죄를 지어 문둥이로 태어났다가 부처님의 가르 치로 출가한 한 스님의 구도 역경을 그 린 무용극 '재생'은 역동적이고 회화 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불자 무용인회' 창립 기념 공연 인 이번 행사에서는 최장막(무형문 화재 제27호)의 '승무'를 비롯해 이현자씨(무형문화재 제92호)의 '태 평무', 김진홍씨(무형문화재 제97호) 의 '한량무' 등과 일본 무용수들의 전통춤이 공연됐다.



◇김유경 작 '누비 미고지'

누비승복에 담긴 불심

김유경 '손누비'展

13~17일 갤러리 LGF

수익금전액 심곡암 중창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 명주와 면으로 지어낸 누비 승복 한 벌이면 산사의 겨울을 거뜬히 나지 않을까. 전통 손누비로 만든 승복 등 누비옷전 이 열릴 예정이다. 색다른 관심을 모 으고 있다. 디자이너 김유경(30)씨가 10월 13 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 LGF에서 '김유경 손누비'展 을 마련한다. 이 전시회에서 김씨는 5년간 집선삼매로 지어낸 승복 등 누 비옷 40여벌을 선보인다. 프랑스 에스모드(ESMOD)에서 공연 의상을 공부한 김씨 서양의 '필트'와

동양의 '누비'를 접목시킨 의상디 자이너로 호평을 받았다. 또 96년 '삼 성 에버랜드 20주년'의 공연의상을 제작했다. 이 전시회는 천연염색의 옷감을 따맴히 누빈 손누비 통해 자 신의 뜬 마음을 다스리며 김씨가 구 현한 심심(信心)의 세계를 여여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 수익금은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의 중창불사공모로 전액 사용된다. 김씨가 보시한 40여벌 의 누비옷 총 가격은 1억 5천만원.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씨는 "심곡암 은 말 그대로 북한산 깊은 계곡에 위 치한 기도도량"이라며 "이 곳에 일반 불자들이 머물고 수행하는 요사채를 짓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 다. (02)3441-8077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손 양면자수 불교미술 탄생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새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기법

관음도(37x83) 어락도(25x25) 인물도(25x25) 연꽃(25x25) 달마도(25x25)

■작업소요기간 : 10일 ~ 100일 이상 (수업인원 관계로 규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음도·지장도·십승도등 주문제작 가능▶

▷정인정신을 바탕으로 오랜시간 불심의 손끝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작업으로 한평 한평 수놓이져 새겨진 놀라운 자수작업입니다. >신심이 바탕이 되어 가슴으로 심혈을 기울여 새겨 놓은 불교예술품에서 자수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오.

▷영정, 인물자는 후손들에게 소중한 가보가 될 것입니다.(인물도)

▷불자들간의 선물을 받는 분은 최고의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물고기 두마리는 부부금실이 좋다는 의미도 있으며,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어락도)

▷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분께는 달마도를 함께 드립니다.

흔치 않은 불교미술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오. 분자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명 화 자 수

전시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6-6 살림빌딩 3층
전화 : 02)3446-5090/ H.P : 011)327-5094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피라미드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성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찾습니다

금년 초 현대불교에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가 연재된 후 많은 분자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창간 5주년에 맞추어 『선방일기』를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선방일기를 쓴 지허 스님의 행방을 알 길 없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대불교나 여시아문으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허 스님의 직계 가족(숙가) 되시는 분은 언제라도 '여시아문'으로 연락주십시오.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사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99년 10월 6일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

세종도 소원성취기도 및 방생법회 유람선취항

△ 세종도 - 500인승 사랑의 유람선 지함

여지껏 불자의 입으로만 전해오던 불가의 전설적 성지이며 소원성취한다는 석가세존의 신비를 간직한 남해의 최남단 세종도에 마침내 500인승급 대형 크루저 유람선이 취항함으로 불가의 전설적인 세종도에서 소원성취 기도 및 방생법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해는 신라고대사찰인 금산 보리암, 용문사, 화방사가 있는 불교의 산교육장으로 고대사찰 삼사승과 세종도 소원성취 방생기도법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심과 불자여러분의 불심을 한층더 새로이 할 것입니다.

■ 소요시간 : 왕복 3시간, (매주 일, 월요일 10시 정기운항 및 수시운항)

■ 전 화 : 0594) 862, 863-0947

남해해상관광레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해수욕장